

#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3.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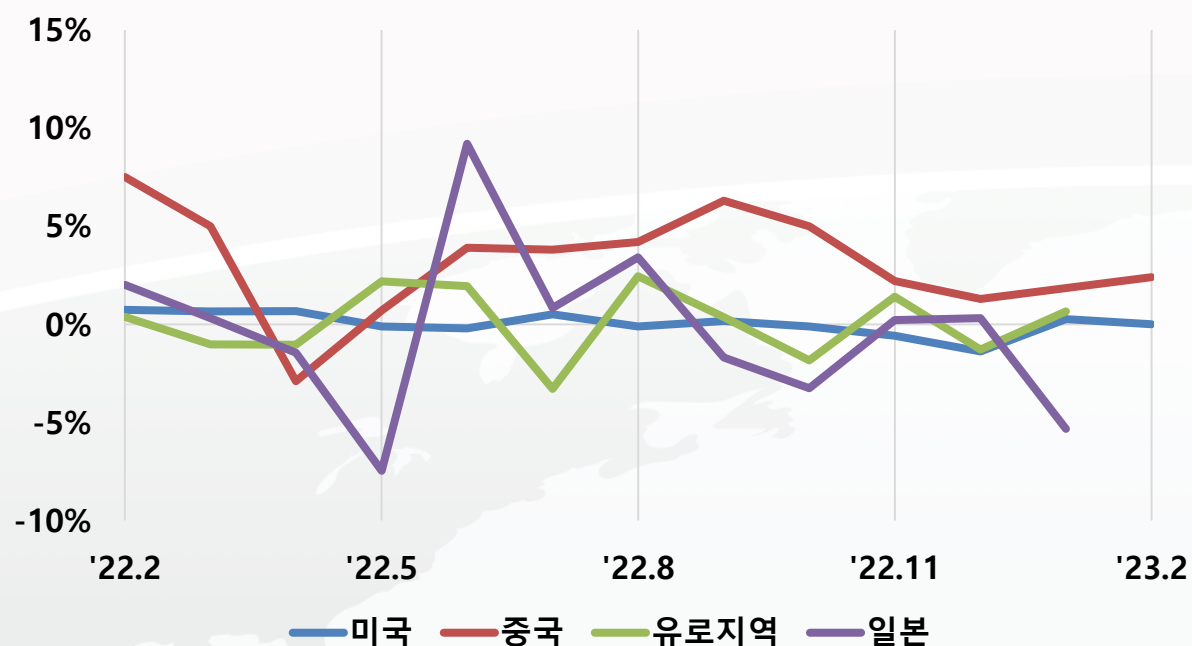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# 세계 경제동향

## 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진정 속 금융시장 불안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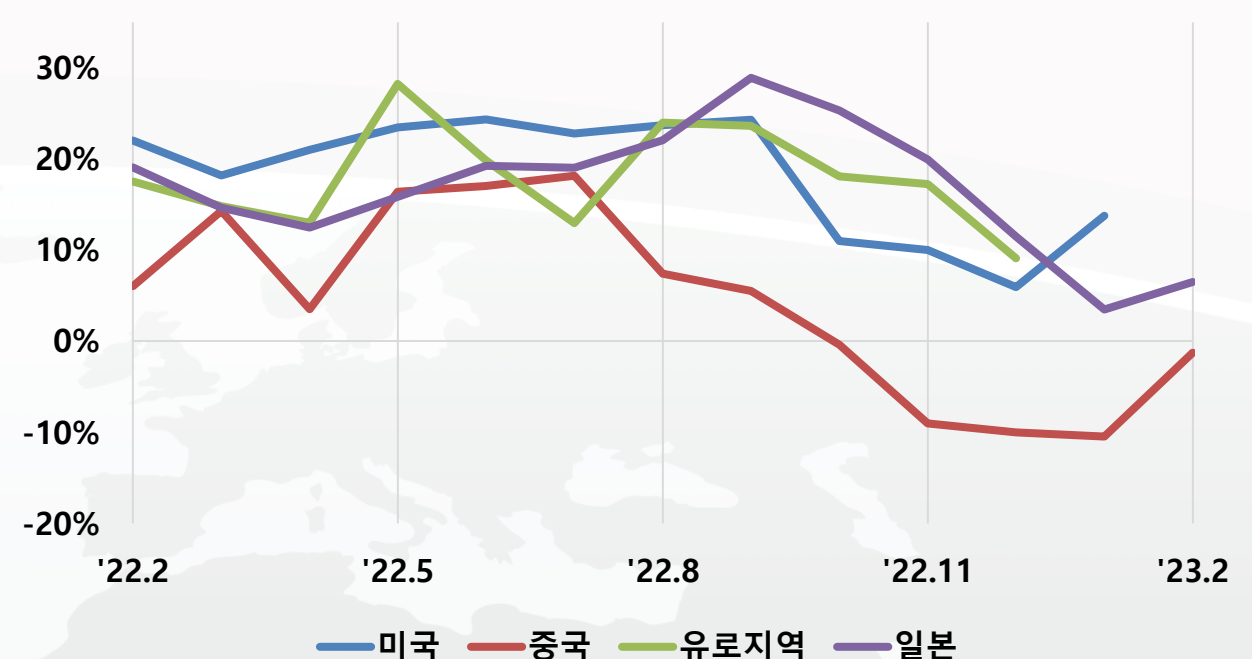
- **(미국) 소비자 물가 안정세, 고용시장 견조세 유지 속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미연준의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**
  - 2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% 성장, 2월 실업률(3.6%) 상승, 비농업부문 취업자(+31.1만명) 예상치(+22.5만명) 상회
  -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 +6.0%로 전월(+6.4%) 대비 하락 및 시장예상치 부합
  - SVB 파산 등 금리급등에 따른 채권가격 급락으로 금융시장 불안정 확대
- **(중국) 경제 리오프닝 이후 내수와 서비스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 양상**
  - 1~2월 산업생산 증가율 +2.4%(전년동기 대비)로 '22년 12월(+1.3%) 대비 상승,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3.5% 증가, 수출은 6.8% 감소
  - 2월 제조업 PMI 지수(52.6)는 1월(50.0) 대비 상승하며 2개월 연속 경기판단 기준치(50)도 상회함
- **(유로존) 산업 생산 등 실물지표 소폭 반등, 높은 소비자 물가 지속**
  - 1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.7% , 소매판매 0.3% 상승, 2월 제조업 PMI 지수는 48.5로 전월(48.8)대비 하락
  -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+8.5%로 전월(+8.6%)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
- **(일본) 소비의 견조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및 산업생산 악화**
  - 1월 산업생산(전기 대비 △5.3%) 큰 폭 위축, 소매판매 전기대비 1.9% 증가, 소비자물가 상승률 +4.3%로 상승폭 확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  
자료 : Bloomberg

# 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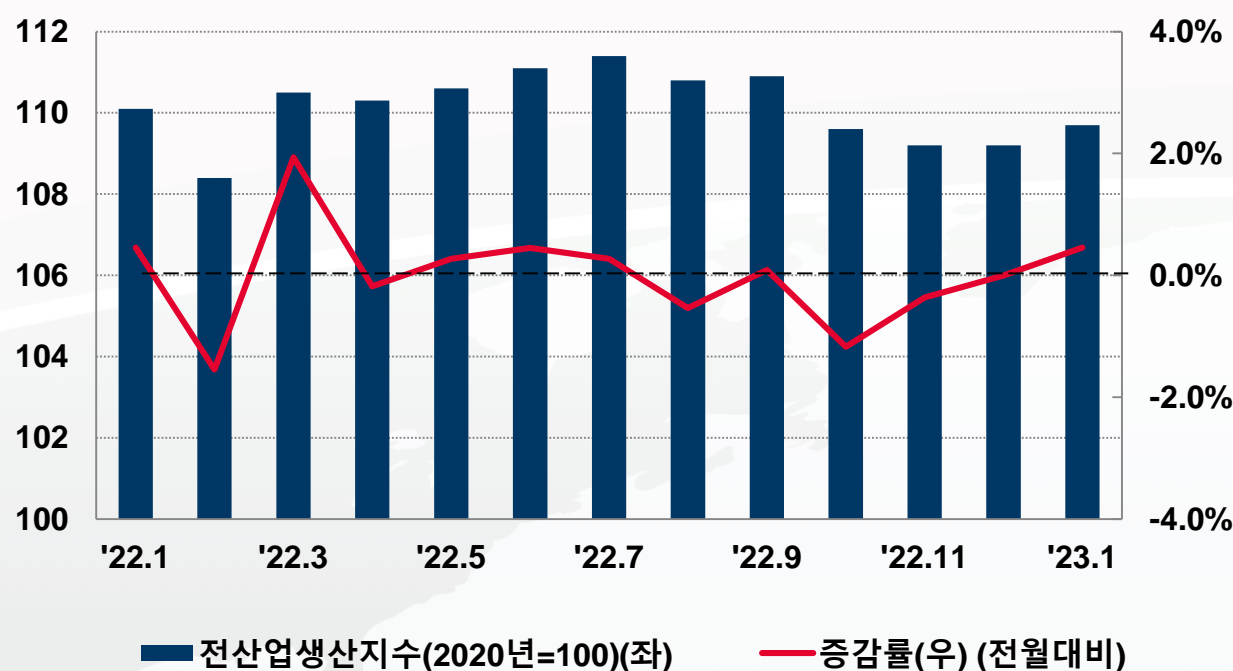
## ■ 산업 활동 : 광공업·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으나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

- (생산)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·서비스업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0.5% 증가
  - (광공업 : +2.9%) : 반도체( $\Delta$ 5.7%) 등에서 줄었으나, 통신·방송장비(+111.0%), 자동차(+9.6%) 등에서 증가
  - (서비스업 : +0.1%) : 금융·보험( $\Delta$ 5.0%) 등에서 줄었으나, 도소매(+3.7%), 정보통신(+3.1%) 등에서 증가
- (경기)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8.5p)는 건설수주액 등은 증가했으나 재고 증가,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 하락으로 전월대비 0.3P 하락 (기준치 100)

## ■ 수출 동향 : 글로벌 경기 위축,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수출 감소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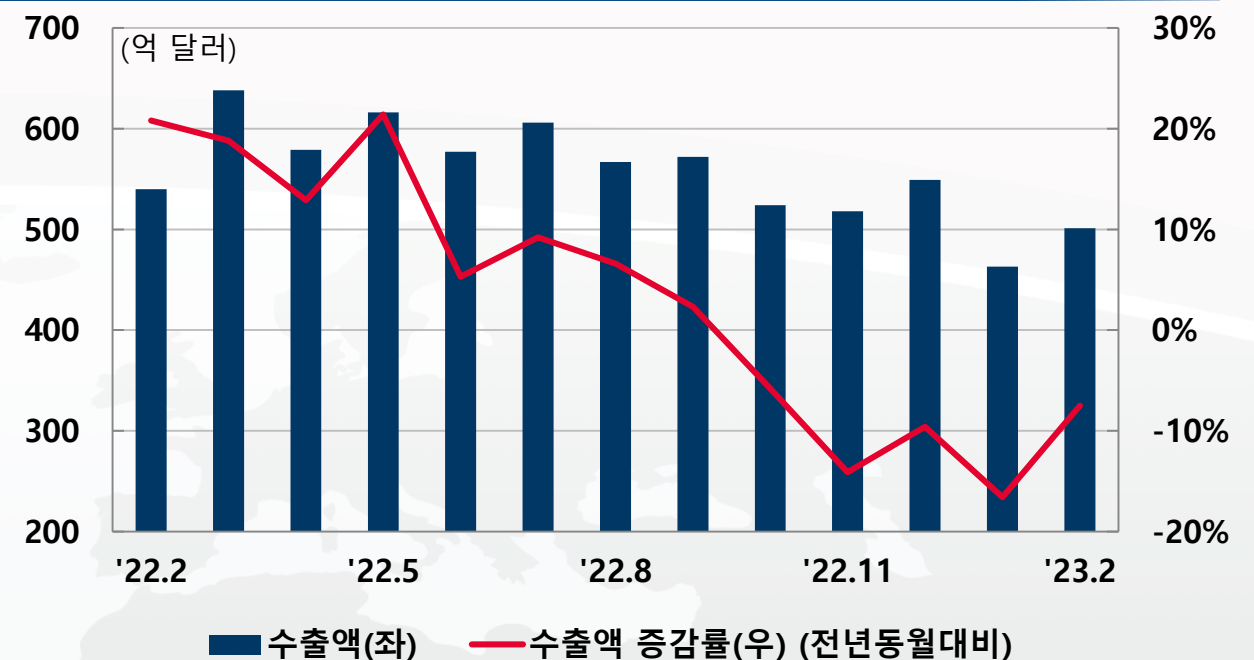
- 2월 총수출은 501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 $\Delta$ 7.5%), 무역수지( $\Delta$ 53억 달러) 적자 지속
  - 미국·EU·중동 수출은 증가,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위축 영향으로 중국( $\Delta$ 24.2%), 아세안( $\Delta$ 16.1%) 등은 감소
  - 자동차(+47.1%), 일반기계(+13.0%) 등은 증가, 글로벌 수요 둔화로 반도체( $\Delta$ 42.5%), 석유화학( $\Delta$ 18.3%), 철강( $\Delta$ 9.8%) 등은 감소

전산업생산지수 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#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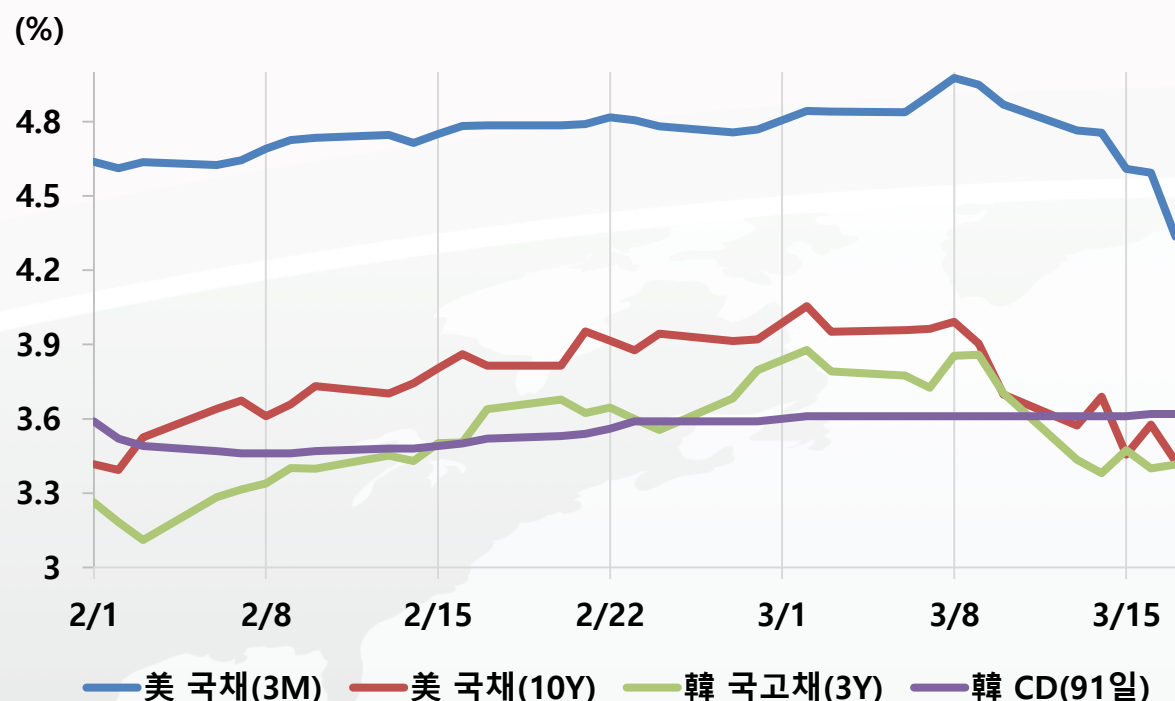
## ■ 금리 : 미국 금융기관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국채 수익률 급락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2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며 3월 초까지 4.1%(3월2일)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, 이후 SVB 파산, CS(크레디트스위스) 위기 등에 따른 미연준 금리 인상폭 확대 가능성 약화 및 안전자산 수요 확대로 3.4%(3월17일)대로 하락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채 수익률(10년물)과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3.4%(3월17일)대로 하락

## ■ 환율 : 원/달러 환율은 1,300원/달러 수준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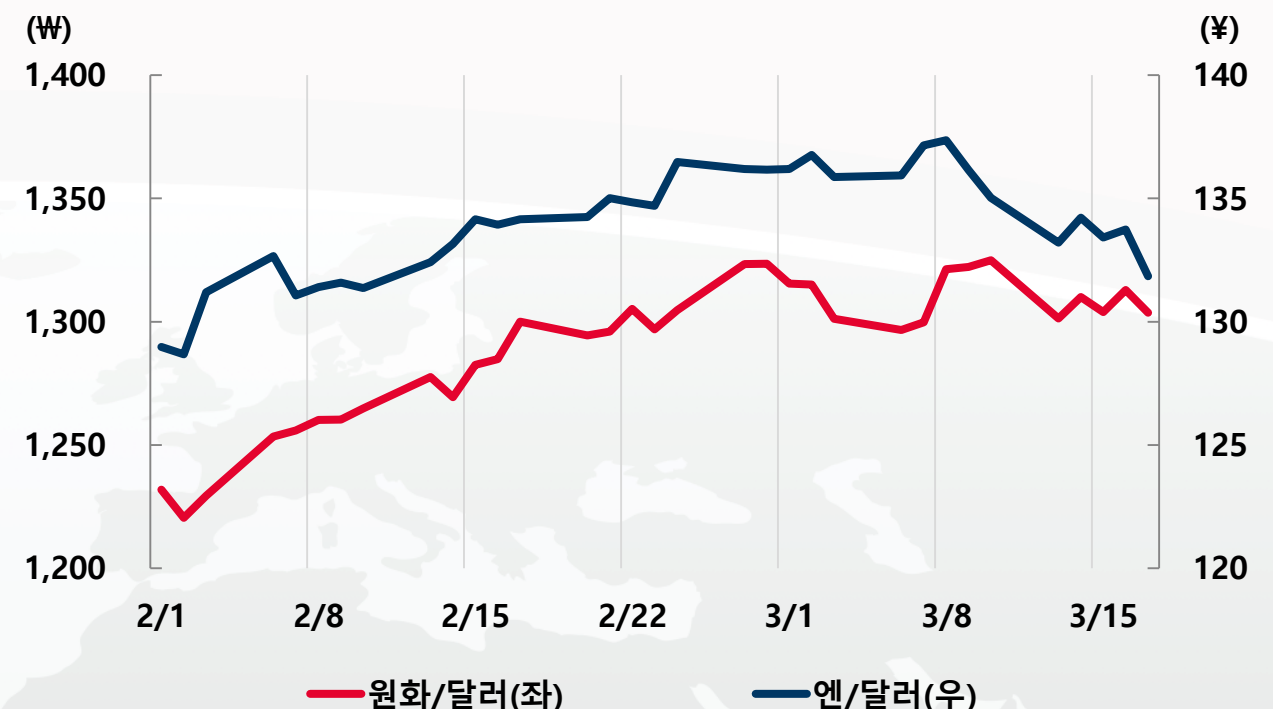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2월 중 원/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,324원/달러(3월10일)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3월 FOMC의 금리인상 기조 약화 기대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1,300원/달러 수준 유지
- (엔/달러 환율) 2월중 엔/달러 환율은 일본 대외경제 부진 및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 등으로 137엔/달러(3월8일)대로 상승한 이후 미달러화 약세 반전으로 하락폭을 키우며 131엔/달러(3월17일) 기록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#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## ■ 유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, 천연가스 가격은 날씨 예보에 따라 소폭 반등 후 재하락

- (원유) 미국, 유럽 등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, 3월 중순 미국의 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 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유가 하락, 3월 중순 배럴당 70달러 중반대(3월17일, 두바이유 \$74.84/bbl) 기록
  - 3월 초, 미 연준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긴축 정책 강화 및 달러 강세 등이 유가에 하방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3월 중순 미국 SVB 파산에 이어 유럽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며 금융시장 불안 증폭
- (천연가스) 3월 초 한파 예보로 난방용 가스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가스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mmBtu당 3달러선 기록 이후 3월말 온난한 날씨가 예보되며 재하락, 3월 중순 2달러 초반대(3월17일, NYMEX \$2.34/mmBtu) 기록
  - 온난한 날씨예보 뿐 아니라 3월 중순의 금융위기 우려 확대, 미국의 5년래 평균수준 대비 21.5% 높은 천연가스 재고 수준 등이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영향

### 국제유가 추이



###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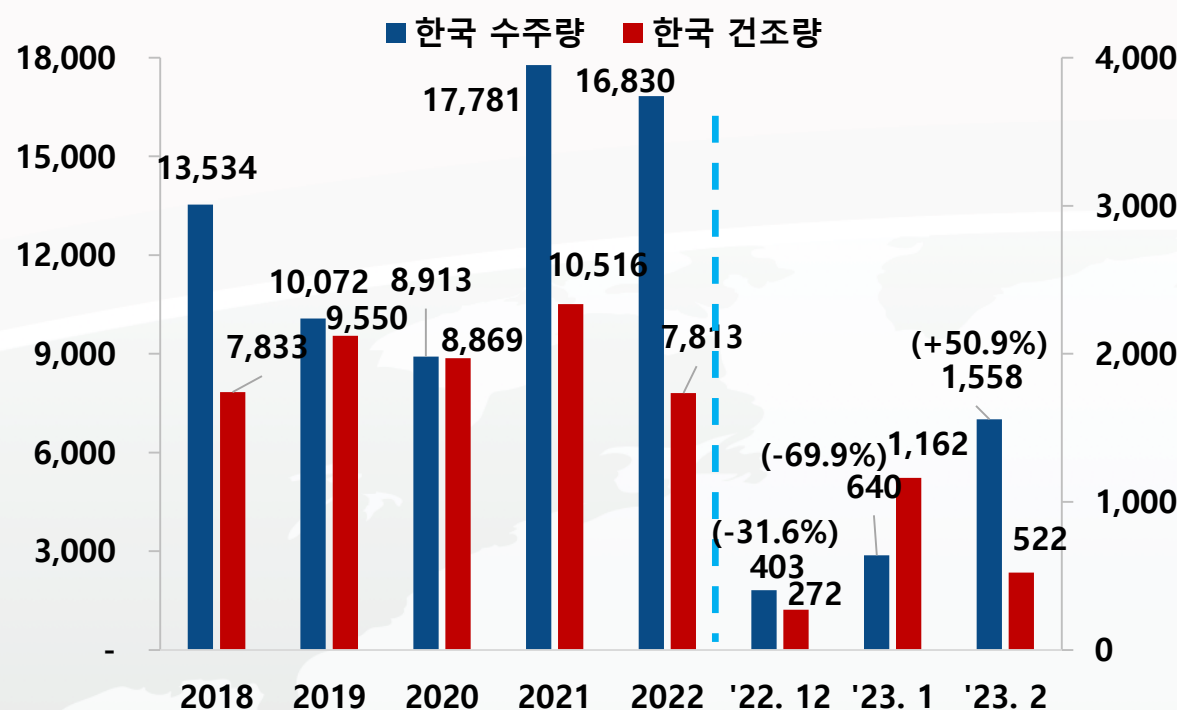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## ■ 2월 세계 발주량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한국 수주량은 비교적 양호

- 2월, 세계 신조선 시장은 고금리 영향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한국은 컨테이너선 집중 수주로 양호한 실적
  - 2월 세계 발주량은 210만CGT(전년동월 대비  $\Delta$ 25.2%), 2월 누적 발주량은 424만CGT(전년동기 대비  $\Delta$ 47.9%)
  - 2월 한국 수주량은 156만CGT(전년동월 대비 +50.9%), 누적 수주량은 220만CGT(전년동기 대비  $\Delta$ 30.2%)
  - 2월 한국 수주액은 45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79.7%), 누적 수주액은 63.3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 $\Delta$ 24.2%)
  - 2월 발주 시장은 탱커 물량의 증가와 일부 대형 선사의 컨테이너선 물량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진
  - 한국은 CMA CGM과 HMM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21척을 전부 수주하며 양호한 수주 실적 달성
- 2월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정상궤도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
  - 2월 수출액은 15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 $\Delta$ 10.7%)로, 2월 누적 수출액은 29.9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+19.2%)
  - 아직 본격적인 고선가 물량이 인도되지 않고 인력난 등에 의한 건조활동 제약 등으로 수출은 다소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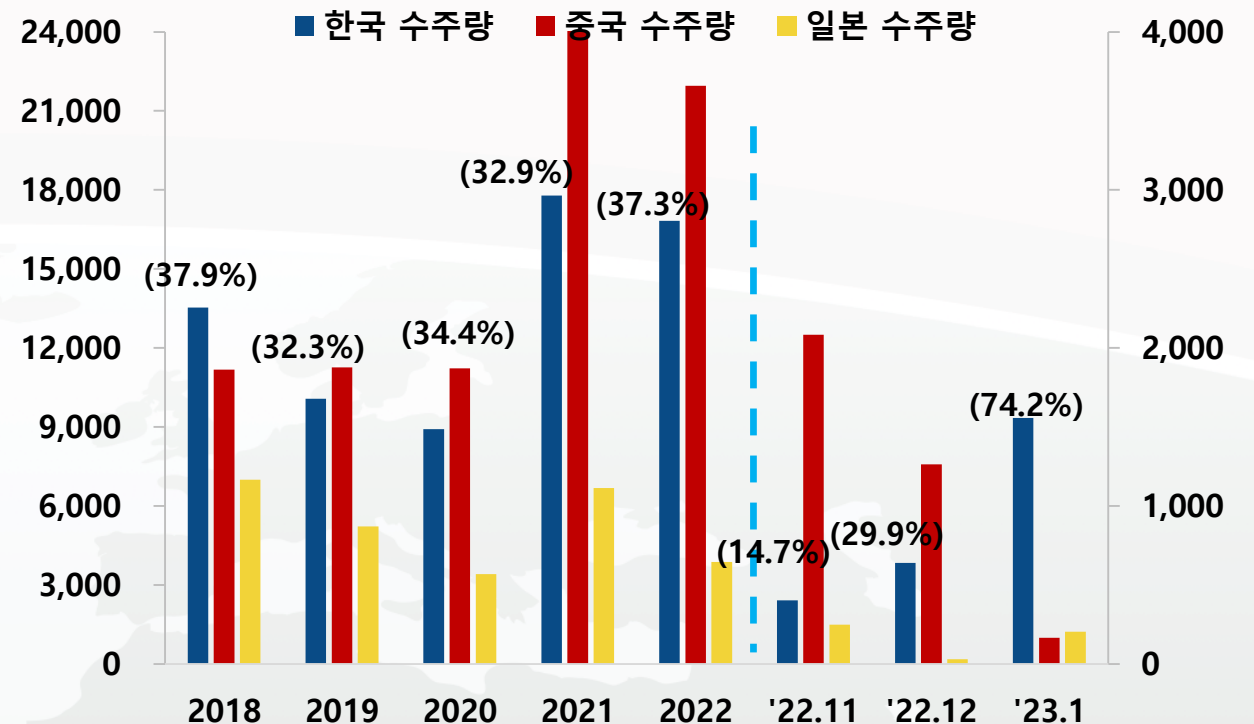
###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### 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자료 : Clarks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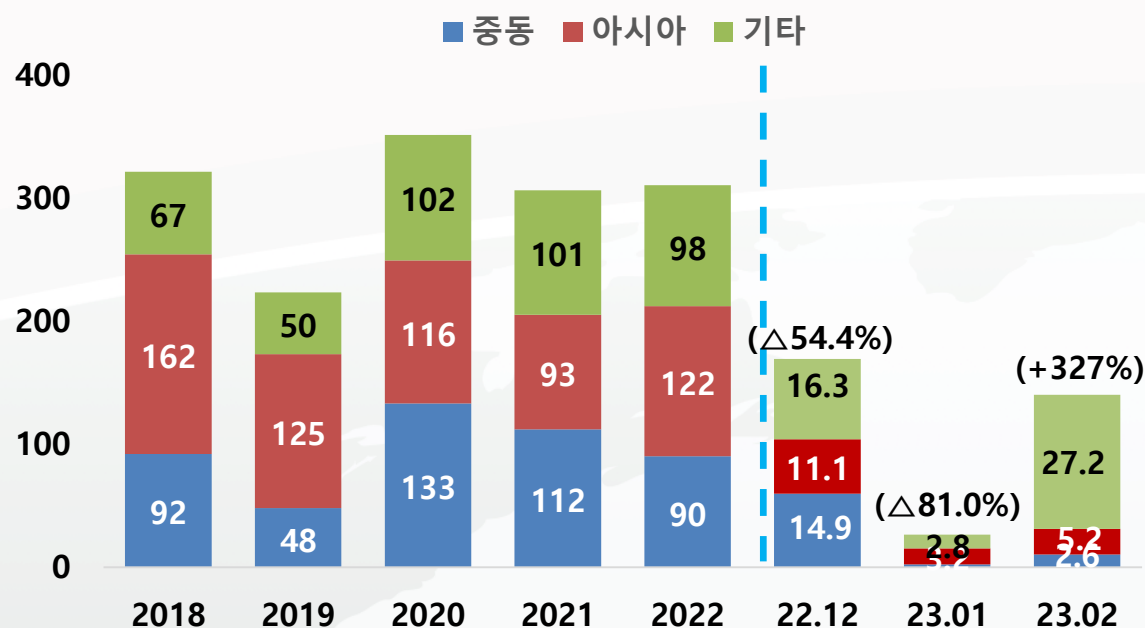


## ■ 2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327% 증가한 35억 달러

- (지역별) 2월 수주액은 북미 20.4억 달러, 아프리카 6.2억 달러, 아시아 5.2억 달러, 중동 2.6억 달러 순
  -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플랜트를 5.9억 달러에 수주
- (공종별) 플랜트 9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1,483%), 토목 2.9 달러(+625%), 건축 20.8억 달러(+700%) 기록
- 미국의 세금공제 지원 정책에 따라 반도체 및 리튬 배터리 등 국내 기업들의 현지 공장 건설이 늘어나고 있으며, 2월까지 북미지역 누적 수주액은 22.3억 달러로 이미 전년의 절반을 달성
  - 미국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, 올해 미국 수주액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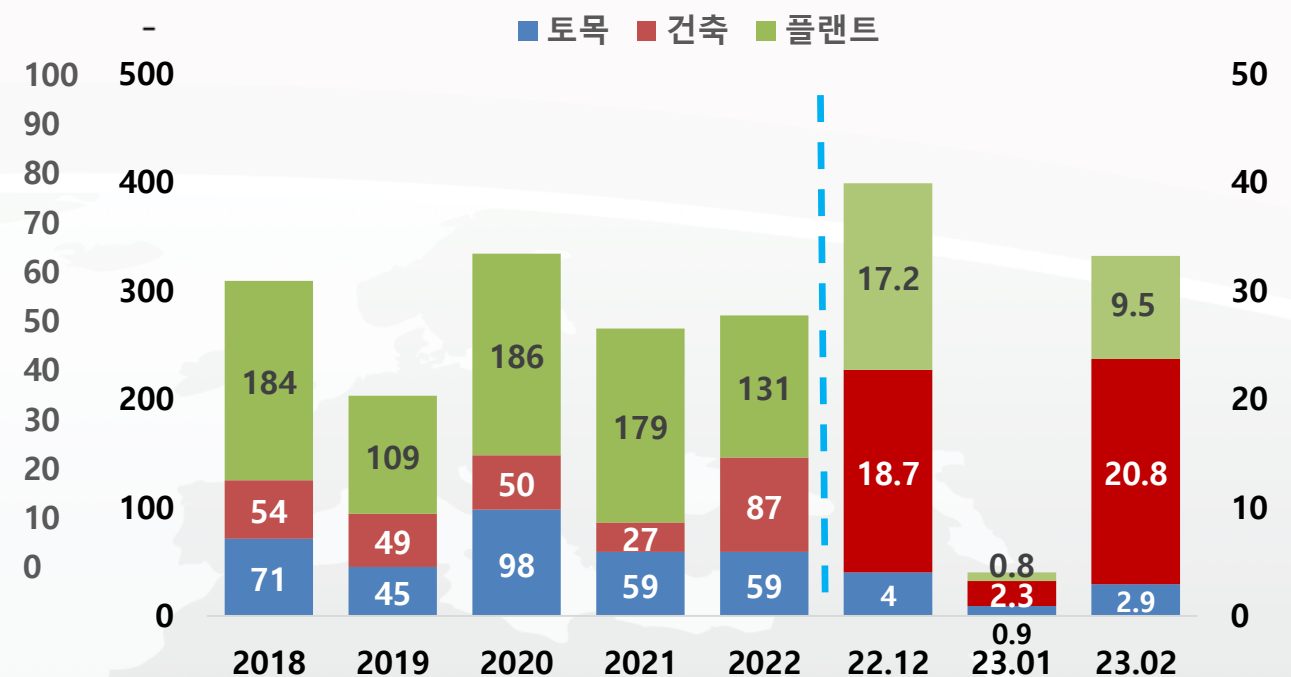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  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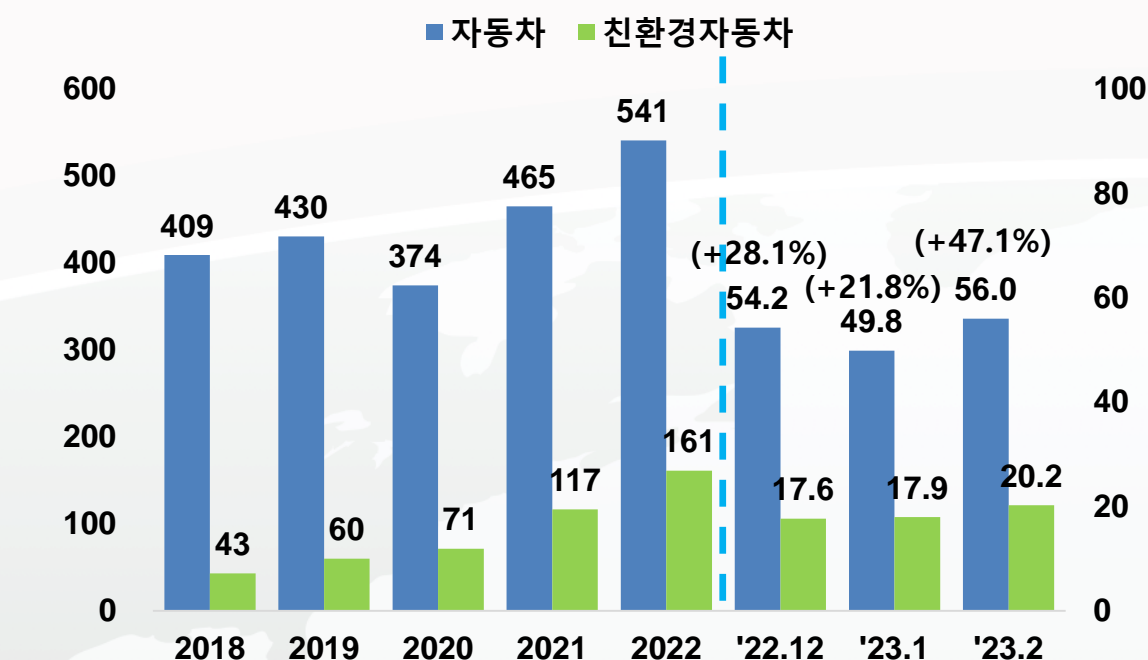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## ■ 2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56.0억 달러, 20.2억 달러 기록

- **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47.1% 증가한 56.0억 달러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72.9% 증가한 20.2억 달러 기록**
  - SUV,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수출이 지속되며 역대 최고 자동차 수출액 달성
  -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72.9%가 증가하며 최초로 20억 달러 돌파
  - \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2년 2월) 30.7% → ('22년 12월) 32.5% → ('23년 1월) 36.0% → ('23년 2월) 36.1%
  - \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3년 2월 대수기준) : 순수전기차(49.1%), 하이브리드(41.4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9.5%), 수소차(0.1%)
- **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3.3% 증가한 20.2억 달러**
  - 2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완성차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13.3% 증가한 20.2억 달러
  - \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('23년 2월) : 북미(35.8%), 아시아(24.3%), 유럽(23.9%), 중남미(11.4%), 중동(3.9%)

**자동차 수출액**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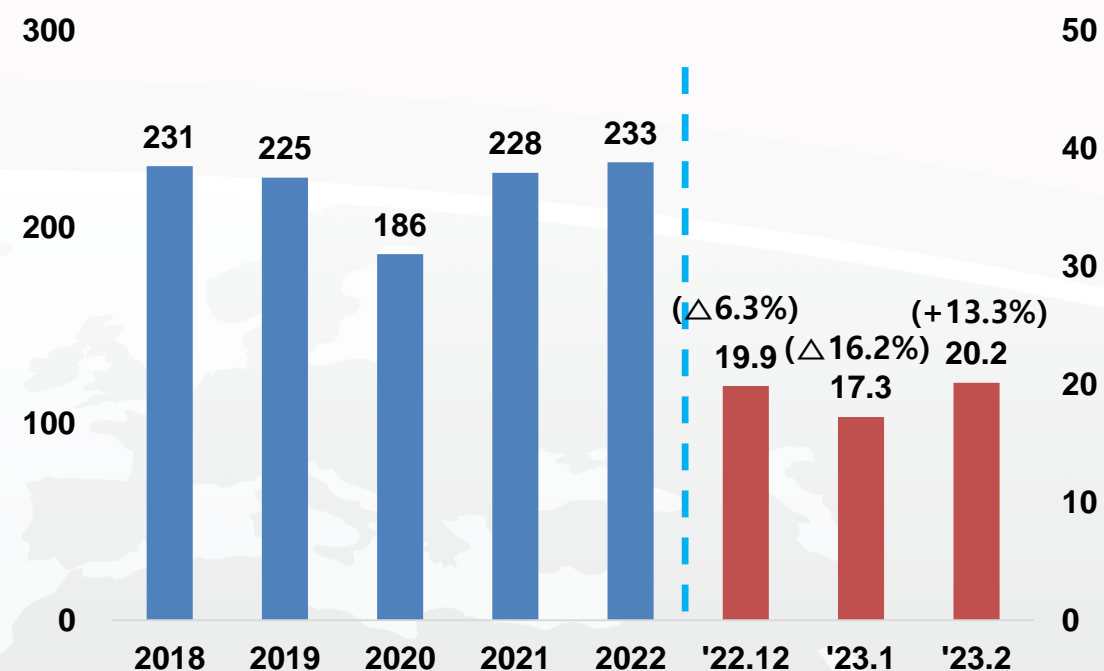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**자동차부품 수출액**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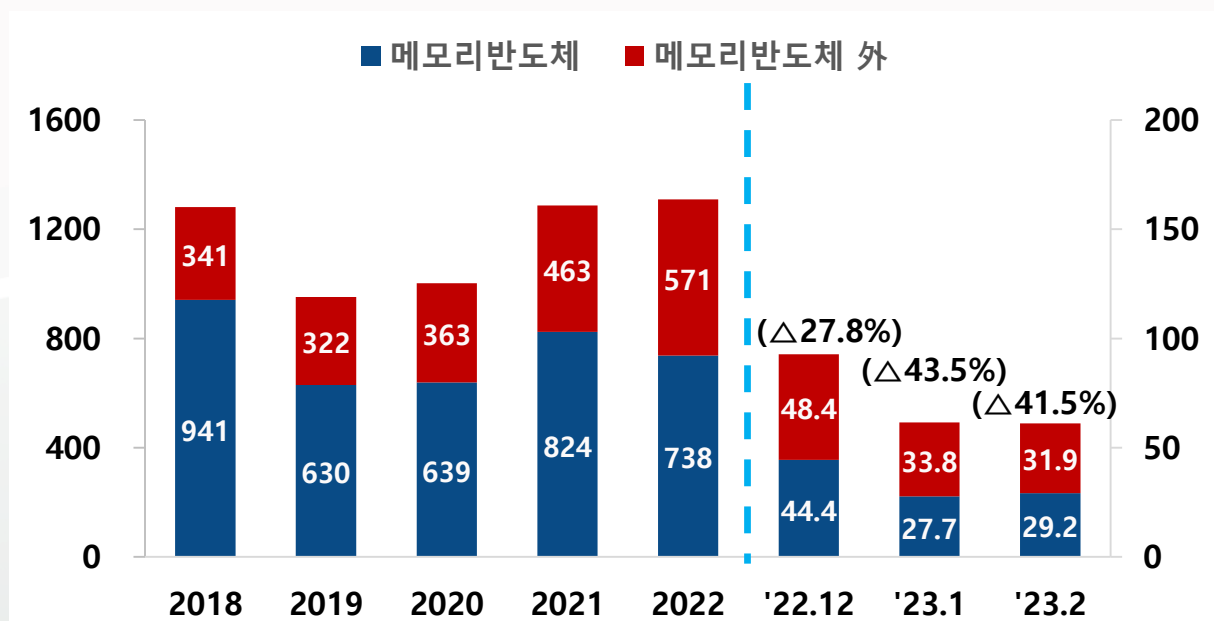


## ■ 2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△41.5%, △42.2% 기록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1.5% 감소한 61.1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개월 연속 감소
  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수요둔화,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3.9% 감소한 29.2억 달러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0%대 감소
    - \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2.1~4)3.41 → (5~6)3.35 → (8~9)2.85 → (10~12)2.21 → ('23.1~2)1.81 (트렌드포스)
  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IT기기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5.5% 감소한 26.9억 달러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5%대 감소
    - \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% 감소한 19.3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2% 감소한 7.1억 달러 기록
    - \*\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 : ('22.2)88.1 → (4)89.9 → (7)91.2 → (10)96.8 → (12)85.6 → ('23.1)81.4 → (2)78.6 (한국은행)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2.2% 감소한 13.0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역성장
  - OLED 수출은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9.3% 감소한 8.0억 달러 기록
    - \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 : ('22.2)50.7 → (4)52.1 → (7)53.9 → (10)57.0 → (12)51.8 → ('23.1)48.5 → (2)49.4 (한국은행)
  - LCD 수출은 LCD 구조조정,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3.0% 감소한 3.0억 달러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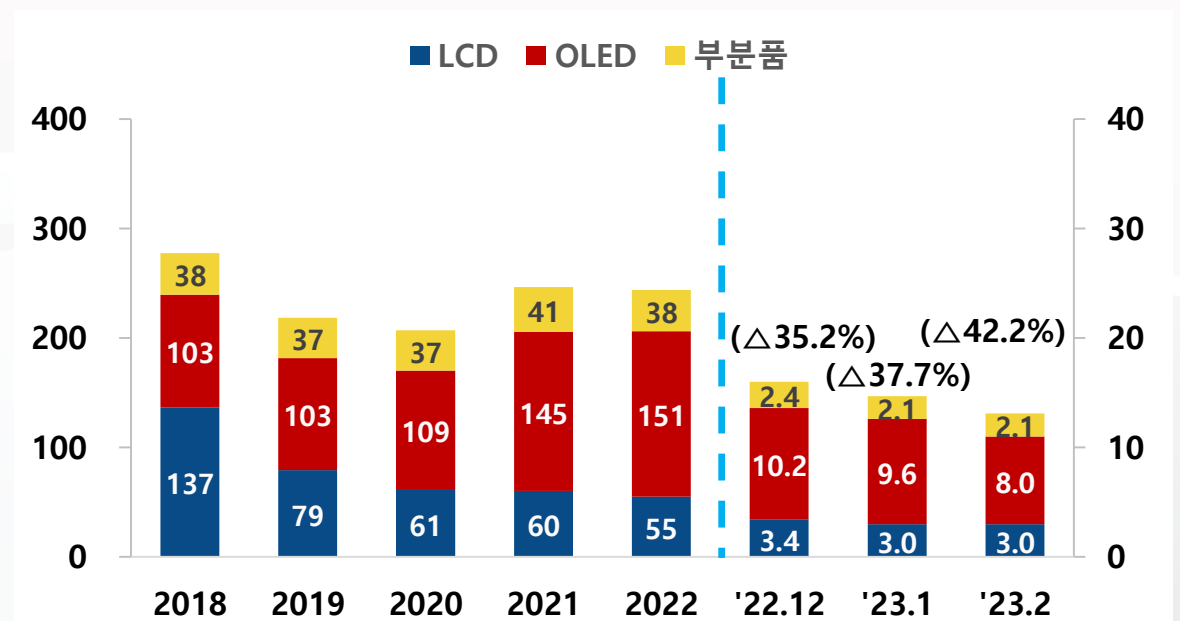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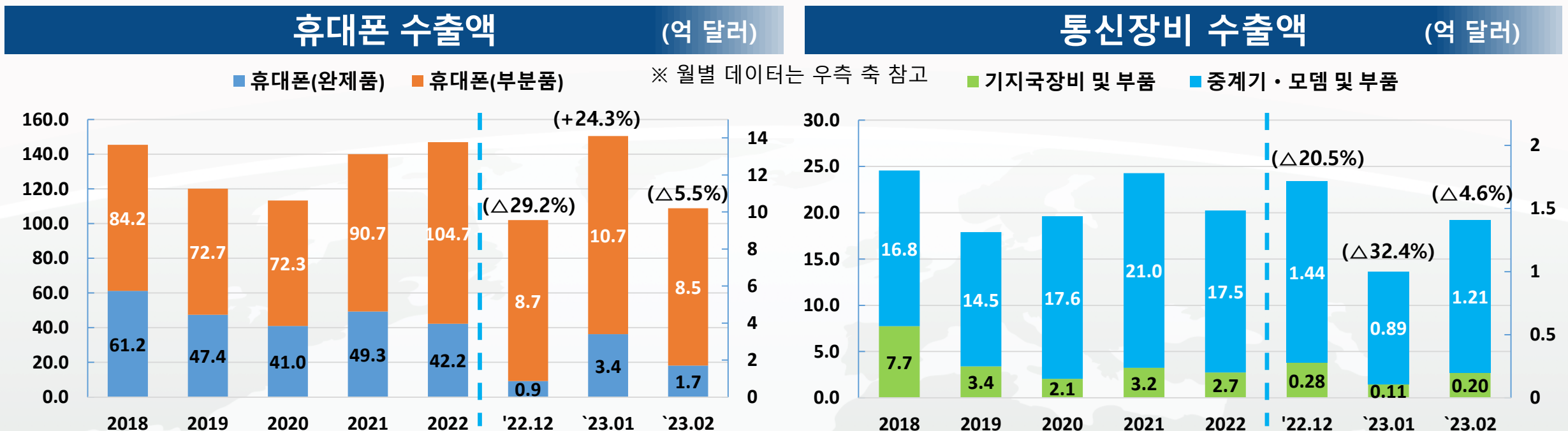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## ■ 2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5.5% 감소, 통신장비 수출액은 4.6% 감소

- **휴대폰 수출은 對유럽 수출이 둔화 되었으나 중국의 부분품 수요가 유지되며 전년동월 대비 5.5% 감소한 10.3억 달러 기록**
  - (완제품) 휴대폰 완제품 수출액은 유럽 내 ICT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(△36.2%) 1.7억 달러 기록
    - \*독일(0.16억 달러, 전년 동월 대비 △56.5%), 오스트리아(0.06억 달러, △77.0%) 등 유럽 내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
  - (부분품) 중국 내 휴대폰 제조업 정상화에 따른 부분품 수요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4.8% 증가한 8.5억 달러 기록
    - \*최근 4개월 간 휴대폰 부분품 수출액 중 對중국 수출액 비중: 72.0%(`22년 11월), 63.4%(`22년 12월), 75.1%(`23년 1월), 67.7%(`23년 2월)
- **통신장비 수출은 감소세가 유지하며 전년동월 대비 4.6% 감소한 1.4억 달러 기록**
  - (기지국 장비) 부품 수출액은 증가 중이나 장비 수출액이 크게 감소(△ 96.9%)하여 전년동월 대비 21.8% 감소한 0.2억 달러 기록
    - \*인도(1,232만 달러, +4,513.4%), 베트남(144만 달러, +56.9%), 일본(143만 달러, +172.7%)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기지국 부품 수출액이 증가 중
  - (중계기·모뎀) 중계기·모뎀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유지되어 전년동월 대비 1.0% 감소한 1.2억 달러 기록
    - \*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중계기·모뎀 완제품 수출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2.4% 증가한 0.76억 달러를 기록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 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
 자료 : 무역협회